

한국인 여행객 감소에 일본 도시들 “어렵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방침으로 한국 내에서 ‘일본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며 일본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 측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불매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다수를 차지하는 개별 여행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가현처럼 일본 지방 소도시들은 한국 여행객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광객들의 소비가 주 수입원인 지방 소도시 경제에서 한국 여행객이 큰 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여행객 사이에서 도쿄나 후쿠오카 등 주요 관광지를 벗어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경험하는 여행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지방 도시에서 한국 여행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오이타 공항의 경우 지난 4월 공항이용객 가운데 한국인 비율이 98.5%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야마구치 요시노리 일본 규슈 사가현 지사는 지난 19일 “한국 항공편 감소가 매우 크다.”며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가현에 따르면 사가공항의 한국 항공편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탑승률이 하락했고 티웨이항공은 감편이나 폐지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사가공항에 도착하는 한국 항공편의 90%는 한국인 승객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한국 여행객들의 불매운동에 다소 태연한 반응을 보이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반응이다. 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의 단체여행 예약 취소가 있었지만 대

이 밖에도 이즈하라항, 칸몬항 등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공항, 항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오사카와 홋카이도 등 일본 주요 관광지도 한국여행객 감소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방일 관광객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달성에 먹구름이 감돈다.”고 전했다.

멕시코 살인율 역대 최고 올상반기에만 1만4,603건

멕시코의 치안 불안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멕시코의 살인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지 언론은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총기류 수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서울신문’이 멕시코 국가공공안전시스템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6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만4,60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85건에 비해 600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범죄 증가와 마약카르텔 간 ‘전쟁’도 살인사건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멕시코 범죄조직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서로 미국에 팔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조직 간 싸움도 잦다. 실제로 콜리마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0.7명,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는 10만 명당 34.14명 등으로 마약카르텔 간 충돌이 잦은 곳의 살인율은 평균을 크게 웃돈다.

특히 6월에는 3,0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역대 두 번째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한 달로 기록됐다.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지난해 7월로 3,158건에 달한다.

멕시코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갱단이 활개를 치는 중남미 국가의 일부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살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22명으로 훌쩍 뛰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 상승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살인사건은 역대 최다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만9,111건이었다. 이처럼 살인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국가방위군’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방위군을 연말까지 최대 8만명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총기류 문제이다.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 70%는 총기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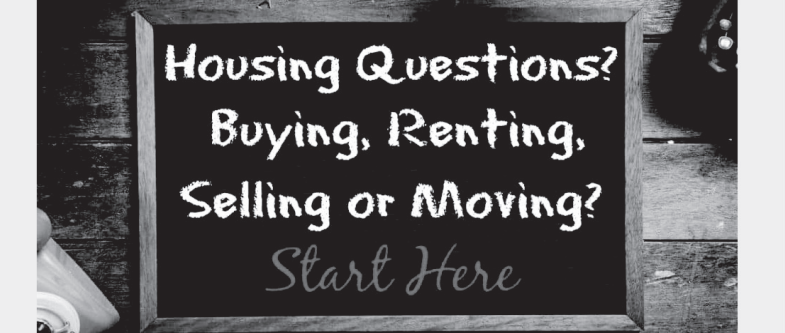
살인 공포에 시달리는 멕시코인들은 국가방위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군부 세력 확장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도 보이고 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